



# 코로나 전후, 영국 밀레니얼 세대의 연금저축 인식 및 행태 변화

김윤진 연구원

연구

연금 자동가입제도(Auto-Enrolment) 시행 후, 영국 밀레니얼 세대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상승하고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등 사적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영국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연금을 해지하거나 납부액을 줄이는 등의 행태 변화가 예상됨.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연금저축에 미칠 장기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망하며 연금 납입을 장기간 지속할 것을 조언하였고, 영국 의회는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연금해지자의 재가입을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함

■ 영국 정부는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2008년 ‘자동가입제도(Auto-Enrolment)’ 정책을 제정하였고, 해당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영국 밀레니얼 세대<sup>1)</sup>의 연금저축 인식 및 행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자동가입제도(Auto-Enrolment)는 고용주가 신규 입사 근로자를 위해 Workplace Pension<sup>2)</sup>을 가입하고 근로자와 함께 연금납부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취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됨<sup>3)</sup>
- Auto-Enrolment 제도 시행 후, 영국 밀레니얼 세대의 퇴직연금 이해도가 높아지고 가입률이 상승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 하지만 코로나 후에도 이러한 긍정적 인식과 행태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연금저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전망과 정부 대응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영국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에 집중하는 소비 인식과 행태를 보였으나, Auto-Enrolment 시행 후 노후 대비 저축(연금저축)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적극적인 태도가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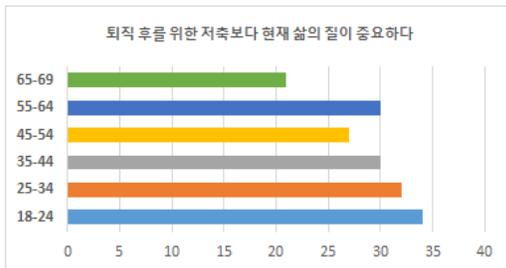
- (Auto-Enrolment 시행 전) 2009년 영국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조사<sup>4)</sup>에서, 영국 밀레

1) 본 리뷰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1981~2000년도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함  
 2)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임(영국의 연금제도는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공적연금(State Pension)과 개인·고용주가 가입하는 사적연금(Private Pension)으로 구성되고, 사적연금에는 Workplace Pension과 Personal and Stakeholder Pension이 있음)  
 3)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3%, 근로자는 임금의 5%(세제혜택을 통한 정부보조 1% 포함)를 최소기여율(Minimum Contribution Rates)로 규정함(2019년 4월부터 적용);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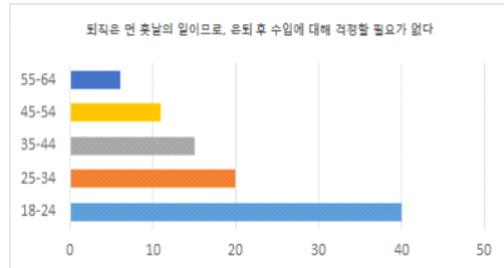
니얼 세대는 '나중을 위해 저축하기 보다는 지금 소비하는' 태도를 보임

- 밀레니얼 세대가 속한 연령그룹은(18~24세, 25~34세) 다른 연령에 비해 ① '은퇴 후를 위한 저축' 보다 '현재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② '은퇴는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은퇴 후 수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두드러짐(<그림 1>, <그림 2> 참조)

<그림 1> 저축에 대한 태도(연령별)



<그림 2> 퇴직 후 저축에 대한 태도(연령별)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2009), "Attitude to Pensions: The 2009 Survey"

- (Auto-Enrolment 시행 후) 2017년 Royal London의 조사 결과, 영국 밀레니얼 세대는 '연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 연금 저축액을 늘리는 등' 변화된 인식 및 태도를 보임)
  - (가입률) 밀레니얼 세대의 Workplace Pension 가입률은 2012년 28%에서 2016년 80%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Auto-Enrolment의 의무적 가입 특성과의 관련이 있음
  - (납입액) 조사대상자 중 75%는 '향후 임금이 상승하면 개인적으로 연금 납입액을 높이겠다'며 개인 추가 납입에 적극적 태도를 보임
  - (해지) 71%는 '자동 가입된 Workplace Pension을 해지(Opt-out)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영국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연금저축 중단, 납입액 감소 등 부정적 대응 행태가 예상됨<sup>7)</sup>**

- (원인1: 고용불안정) 다른 연령층에 비해 COVID-19으로 인한 밀레니얼 세대의 고용불안정 비율이 높음<sup>8)</sup>

4)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2009), "Attitude to Pensions: The 2009 Survey"

5) Royal London(2017), "The Millennial Mosaic: Pensions Through The Ages"

6) 고용주에 의해 자동 가입(Auto-Enrolled)된 연금을 해지할 수 있음. 'Opt-out window'(보통 가입일로부터 1달)에 해지한 경우는 'Opt-out', 이후에 해지한 경우는 'Cessation(Cease the Membership)'이라고 정의함. 연금을 해지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는 가입일(Staging Date)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에 재가입(Re-enroll) 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적 최소 기준 이하로 연금을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재가입 시점 전까지 12달 넘게 연금 납부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됨. 즉, 재가입 시점 직전 1년 내에 연금을 해지한 근로자는 다음 재가입 시점(가입일로부터 6년 후)에 대상자가 될 수 있음: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employers/manage-your-ongoing-responsibilities>

7) Nick Brazier(2020. 5), "What will be the long-term impact of Covid-19 on pension savings for millennials?"

8) Resolution Foundation(2020), "Young workers in the coronavirus crisis: Findings from the Resolution Foundation's coronavirus survey", p. 3

-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일시하고, 실업,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삭감을 경험한 비율이 밀레니얼 연령에서 약 22%(정규직), 40%(비정규직)로 X세대, 베이비부머<sup>9)</sup> 연령층보다 높았음

- (원인<sup>2)</sup>: 연금펀드의 손실 확대) COVID-19에서 비롯된 주식시장 불안정성으로 대규모 연금펀드 상품들의 가치 손실이 컸는데, 현재 투자수익과 연동된 DC형<sup>10)</sup> 가입자의 42%가 40세 이하 밀레니얼 세대라는 점<sup>11)</sup>에서 이들의 피해범위가 클 것으로 이해됨

- 실제로, Workplace Pension Scheme인 NEST의 과거 3개월(2~4월) '2040 Retirement Pension Fund'의 수익률은 -13.7%를 기록하였음<sup>12)</sup>

- (결과) 고용의 불안정과 연금펀드 손실 확대로 인해 영국 밀레니얼 세대가 자동 가입된 연금을 해지·납입 중지하거나 개인 납입액을 최소 수준까지 줄이게 되면서, 이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연금저축의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전문가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퇴직연금에 대한 '코로나의 장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하였고, 영국 의회는 코로나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연금해지자와 관련된 제도 개정'을 제안함<sup>3)14)</sup>

-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밀레니얼 세대의 연금저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sup>15)</sup>이라고 전망하며, 연금을 충동적으로 해지하지 않도록 조언함

-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연금펀드 상품의 일시적 수익률 하락은 '장기투자기간' 동안 회복될 것이므로, 연금을 해지한 근로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 재개(Opt-back) 또는 재가입(Re-enroll)을 고용주에게 신청하여 연금 납부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음

- (정부 대응) 이와 관련하여, 6월 영국 하원에서는 코로나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을 해지한 근로자의 Workplace Pension 재가입이 기존 규정보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TPR(The Pensions Regulator)에 제도 검토를 제안함 **kiqi**

9) 해당 조사에서 X세대는 1966~1980년도 출생, 베이비부머는 1955~1965년도에 출생한 연령그룹으로 정의함  
 10) Defined Contribution(확정기여형): 연금 납부액 외에 투자로 얻은 수익률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함  
 11) ABI(2020. 6), "Low earners missing out on vital tax relief despite more saving for a pension"  
 12) Financial Times(2020. 7. 2), <https://markets.ft.com/data/funds/tearsheet/summary?s=GB00BFZNF59:GBP>  
 13) CNBC U.K.(2020. 5), "Should UK millennials be worried about their retirement savings over the coronavirus crisis?"  
 14) House of Commons Work and Pensions Committee(2020. 6), "DWP's respons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p. 80  
 15) 밀레니얼 세대의 Workplace Pension '장기납부기간'(예: 35년)을 가정하면,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단기간(예: 6개월) 납입 중지하여 줄어든 납부액은 최종 연금적립액 대비 약 1.4% 수준으로 예측됨